

생명과 능력과 재창조

열왕기하 4:42-44, 마가복음 6:30-44

최정웅 목사님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 속에 언약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우리 참사랑 교우들도 많이 참여한 가운데, 제19차 세계렘넌트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주역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기뻐다. 앞으로도 우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렘넌트들이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는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복음 가진 어른들이 먼저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후대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중인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면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복음은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이 생명과 능력이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다가, 재창조의 증거를 얻게 되는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한다.

1.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1)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현장의 상태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현장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정신, 육신, 죽음의 문제가现场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도 세상에는 교통과 재앙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사람들이 모른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서 사람이 출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종교와 우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개인에게 멸망이 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 다 틀린 대답을 했지 않나?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틀린 것이다. 예수님 안에 엘리야 같은 능력의 역사, 에레미야 같은 사랑과 눈물, 세례요한이 부르짖던 정의가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종교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물으셨다.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이 끝내셨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누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있느냐, 참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신자요, 제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요원이다. 그것을 모르면서 이런저런 것을 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다.

여러분이 제자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정말 예수로,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가,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인가 보면 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기 제자를 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왔는데, 그때 의정부의 한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저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왜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데 뭐 하러 교회를 가나요.” “제가 정말 성도님을 잘못 가르쳤군요. 집사님이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저를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좋은 목자로 모시면서, 저를 돌보시던 것보다 더 잘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은 여러분의 구주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일생이 실패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한다. 모든 문제는 그분이 끝내셨다. 그분을 전해준 분이 감사하더라도, 그분은 중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믿느냐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다. 참사랑 가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그런 데에 따라가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

(2)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이 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메시아를 정말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 상태에 있는 세상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파송되는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4장에서는 말씀을 주셨으며, 5장에서는 현장을 보여주셨다. 이제 6장은 이 일을 할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오게 되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다.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마가복음 6:34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알려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다. 복음 없어서 고난당하는 영혼을 살리도록,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가 있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6장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오병이어(五餅二魚 : 다섯 개의 떡, 두 마리의 물고기) 사건이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현장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한다.

2. 주님의 관심을 아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묵상해야 할 부분은, 주님의 관심을 아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다.

(1)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좋았던지 안 가는 것이다. 안기부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권영해 장로님이 이번에 렘넌트대회에 참여하셨다. 이분이 너무 놀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1만 5천 명 이상이 모였는데 질서정연한 것과, 메시지 전의 프로그램과, 메시지 때 전체가 조용히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좋아하셨다. 사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산을 한 것이다. “이백 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방에 식당도 없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거의 6천만 원 되는 돈이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사먹을 식당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가 했더니, 주님은 지형과 바람을 잘 이용하셨던 것 같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흐를 때, 또 산 위에서 들안으로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이용해서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들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식당이 근처에 없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라고 하신 것이다.

(2) 그래서 찾아온 것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다. 그 떡은 호떡처럼 생긴 것인데, 만져보면 딱딱하다. 그것을 떼어 먹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싸준 것이다. 이 아이가 그런데 말씀을 듣느라고, 점심도 먹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중에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실 때 이것을 듣고는, 아이가 예수님이 시장하신가보다 싫어서 드린 것이다. 이 어린 아이의 예물이 대단하지 않나?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드렸다. 이번에 렘넌트대회 때 도시락을 먹는데 한 명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더라. (웃음)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나눠 주라고 하는 것이다. 5천 명을 100명 씩, 50명 씩 나눠서 앉혔다. 이번에 대회 때 좌석을 구역별로 모아서 앉힌 것처럼. 그래서 이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니, 얼마나 제자들이 기가 찬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5천 명이다. 한 2만 명은 모였을 것이다. 거기에 이 도시락 하나를 나눠주려고 하니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내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나눠주라 하니가 어이가 없다. 너나 먹어라 하고 던져 줬는데 주고 보니까 계속 있는 것이다. 어? 하면서 계속 나눠주다 보니 다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열두 광주리 남은 것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것 누가 가지고 갔을까 하는데, (웃음) 꼭 그런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으니. 어린 아이 하나의 헌신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천 명은 되어야 현장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저것은 내 몫이다’ 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다. 여기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지만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에 남게 되었다.

(3)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없으면 응답도 없다.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적의 기회가 된다. 우리 믿음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이때 봉사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예수님의 사람, 참된 제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게 맞지 않다. '이게 내 몫이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 산업을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다. 한 번도 믿지 않았으니,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사실은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다는 잠잠케 된다.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믿으시기 바란다. 모시고 가만 두지 말고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3.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가?

(1)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시였다.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없으면 다 있는 것이요, 예수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을 이제는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니까. 참사랑 가족들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되어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하면, 육신의 문제도, 의식주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당연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무너지고, 해결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나를 봐요, 나는 예수님만 믿었는데 다 되었잖아요." 그제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사무엘이 엘리야 엘리사고, 이사야고, 바울과 디모데였다. 불신앙을 계속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사람,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모델로 삼아라. 이것을 가리켜 <오직>이라고 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2)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오직이라고 한다. 예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유일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유일성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전부 일하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모든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번 주간, 남은 생애 되기를 축원한다. 내 힘, 내 재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는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이 나와 현장에 나타나서 모든 문화를 뒤집는 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한다. 그냥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는데 가정 환경이 변화되고, 보디발의 밭과 그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 배추도 고추도 복을 받았다. 집이 깨끗해졌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변했다.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변했다. 문화가 변하는 것이 재창조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 때 생명이 회복된다. 이 사실을 누릴 때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게 루터였고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다. '나를 정말로 믿는 자가 나오면, 나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참사랑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우리 참사랑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빨리 평화통일, 자유통일 되기를 기도하라.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전부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육신만 따라가는 문화가 되어 있는 이것을 단번에 영적인 문화로 뒤집어버린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닌가.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만 명이 먹고 남게 된 것이다. 여러분,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지 않다. 벽돌 공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였다. 교회에 비가 줄줄 새는데 아무도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목

사님이 한번 실고를 하시는데, 예배당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이것을 담은 것이다. 사장에게 가서 말했다. "사장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너무 착실한 아이가 부탁하는 것이다. "혹시 제가 1년 일할 품삯을 미리 벽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 "저희 교회 예배당을 수리하는데 벽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이 아이가 기특해서 허락해준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벽돌을 조금씩 조금씩 날랐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화를 냈다. 당회 제직회 결의도 한 적 없는데 이런 것을 누가 갖다 놓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 워너메이커가 이것을 가져다놓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 부끄러운 속에서 회개한 것이다. 그리고 결의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새롭게 아름답게 짓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을, 벽돌을 헌물한 워너메이커에게 주었다. 이게 믿음이 되어서 백화점장이 되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한 사람의 헌신은 위대한 역사가 된다.

② 사람들이 전부 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③ 육신의 과학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 못 하는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육신의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문제와 모든 재앙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한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인가. 방해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지 않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일꾼을 왜 세웠는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라고 세운 것이다. 그리고 봉사하라고 세운 것이다. 권세를 부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것을 하라고 세운 것이 절대 아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앉은 곳과 설 곳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복음운동으로 현장의 모든 운명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냥 한 명 영접시키고, 그냥 한 사람 교회화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현장의 문화와 근본을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업이 작품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런 지역 전체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모델이 나오면 램넌트가 보고 따라가게 된다. 이런 응답이 재창조 속에 들어있는 응답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특별히 램넌트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재창조의 증거가 체험되는 이번 주간과 남은 생애 되기를 축원한다.

이 큰 축복과 응답을 누리려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6:1-6에 보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그냥 동네 목수 아들로 생각했다. 절대 하나님이라고, 지도자라고, 선지자라고 믿지 않았다. "썩, 무슨 목수 아들이 선지자냐? 저게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배척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메시야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으니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다. "나를 보고 믿으라.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조금만 믿으면 생명과 능력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전혀 안 믿는 것이다. 얼마나 이상하고 바보같은 일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상히 여기시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재창조,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답을 주셨다. 이것을 누리는 열쇠가 뭐가? 그제 바로 기도다. 정시기도, 24시 무시기도, 집중기도다. 이번에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나? 이런 몰입을 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시작하고 누려야 하겠는가? 그 열쇠가 믿음이다. 하나님을 조금만 믿게 되면,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믿을 분이 당신 뿐입니다.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주님 뿐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정신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산업과 학업에까지 나타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체험되게 하시고, 증거 없는 증인 아닌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도제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디. 아멘"